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윤은초¹ · 김정민² · 한아름³

¹²³명지대학교 아동학과

접수 2017년 3월 21일, 수정 2017년 5월 9일, 게재확정 2017년 5월 16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과 더불어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대학생 415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21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부정정서의 회피,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착취/자기중심성이었으며, 몰입 및 내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과민/취약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염려 완벽주의 중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SNS 중독경향성을 설명하는 유일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내현적 자기애와 몰입 및 내성,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와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부정정서의 회피 간의 관계는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용어: 내현적 자기애, 대학생, 평가염려 완벽주의, SNS 중독경향성.

1. 서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SNS)란 온라인 공간에서 친구, 동료 등 이미 형성된 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도록 돕는 온라인 서비스로 미니홈피, 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 프로필기반 서비스, 커뮤니티 등이 포함된다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5). SNS를 통해 개인 이용자는 가상 커뮤니티 상에서 자신의 의견, 관심사, 혹은 다양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Jeong과 Moon, 2015; Kim와 Suh, 2015). 최근 인터넷 이용자 중 SNS 이용자는 64.9%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5), 2015년 SNS 이용률은 2011년에 비해 약 2배의 증가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2015). 이러한 SNS의 급격한 성장세와 더불어 SNS의 과도한 사용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미국의 경우 대표적인 SNS의 유형 중 하나인 페이스북 (Facebook)의 과다 이용으로 인한 ‘페이스북 중독 장애 (Facebook addiction disorder)’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으며 (Karaiskos 등, 2010), 이후 SNS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 기능의 장애를 경험하

[†] 이 논문은 제 1저자인 윤은초의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정리한 것임.

¹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석사학위.

² 교신저자: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E-mail: jmkim122@mju.ac.kr

³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석사과정.

는 상태를 가리키는 ‘소셜 네트워크 중독 (social network addiction)’ 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독 (social network services addiction)’의 개념이 소개되었다 (Andreassen 등, 2017; Kuss와 Griffiths, 2011). 이와 유사하게 국내의 경우, SNS 중독경향성은 온라인상의 대인관계에 대한 과도한 몰입으로 인해 일상생활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며, 금단 및 내성 증상이 수반될 수 있는 상태로 정의된다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5).

SNS 중독경향성 관련 선행연구들은 성별, 이용 동기, 이용 시간 및 접속 빈도 등과 같은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것들 (Ha, 2016; Lee 등, 2014; Suh와 Cho, 2013)과 더불어 자기에, 자기중심성, 자기효능감 (Suh와 Cho, 2013; Lee 등, 2016; Lee와 Cho, 2012), 우울, 사회불안, 외로움 (Hwang과 Kim, 2015; Lee와 Cho, 2012; Seo 등, 2015) 등의 개인내적 변인들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개인내적 변인들 중 자기 관련 변인들은 SNS 중독경향성과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중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에 주목하였는데, 내현적 자기에 과장된 자기 지각, 자기중심성 및 인정 욕구 등의 자기애적 성향이 내면에 잠재되어 있음을 가리킨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경우, 자신에 대한 과대 평가 및 기대, 그에 따른 타인의 인정 욕구는 높은 반면, 실제 성취 또는 대인 간 관계에서의 자기상은 부정적이므로 자기 개념의 불일치를 경험하기 쉽다 (Kim과 Lee, 2015; Park과 Chung, 2013). 즉, 부정적인 자기 평가는 대리 욕구 충족 혹은 현실 도피의 대처 방안으로 SNS 몰입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자기 평가는 개인의 내적 기준에 의한 주관적 개념임을 감안할 때 자기에 대한 기대치와 실제 경험하는 자기 간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현적 자기에 SNS 중독경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적합한 자기 관련 변인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내현적 자기에 자기중심적 성향으로 인해 타인을 무시하거나 이용하며, 타인에게 일방적인 현신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한편 (Lee 등, 2016), 타인의 반응을 거절이나 비난 등으로 받아들이기 쉬워 쉽게 분노나 적대감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Jeong과 Moon, 2015; Krizan과 Johar, 2015). 이러한 내현적 자기에의 특성들은 SNS 상에서 타인의 반응 통제가 좀 더 용이하며, 타인의 부정적인 피드백과 직접 대면할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기타 인터넷 유형들과 달리 자기에 관한 이야기 (story) 또는 틀 (framework)을 주도적으로 구성, 업로드 및 관리할 수 있는 SNS의 특성은 앞서 기술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들과 부합할 것으로 보았다.

한편, 자기애적 성향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Park과 Chung, 2013; Sherry 등, 2016; Smith 등, 2016). 자기애적 성향의 과장된 자기 지각은 스스로 비현실적인 높은 기준을 설정하도록 이끌며, 자신의 결함이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특징을 나타내므로 완벽주의와 연결될 수 있다. 특히 지나치게 고양된 자기 개념과 더불어 열등감이 내재되어 있는 내현적 자기에의 경우,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 혹은 타인이 부과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해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 유형 중 평가염려 완벽주의에 초점을 맞추었다. 나아가 이러한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경우 회피 대처 양식을 빈번하게 사용 한다는 것과 회피적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사용할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증가한다는 것에 근거한다 (Kim과 Suh, 2015; Santanello와 Gardner, 2007). 또한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를 살펴본 Park (2015)의 연구에서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대인관계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며,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자들은 결핍된 대인관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SNS 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SNS 중독경향성 모두는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취약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ee와 Cho, 2012; Suh와 Cho, 2013).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평가염려 완벽주의를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는 20대의 SNS 이용률이 75.6%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으며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도 1시간 20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2016).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에와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 나아가 내현적 자기에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에와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에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서울, 경기 및 기타 지역 소재 6개 대학교의 남녀 대학생 55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한 후, 응답이 누락된 질문지와 SNS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질문지를 제외한 총 415부를 최종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Table 2.1과 같다.

Table 2.1 The subjects of study

Variable	Categories	Frequency (%)
Gender	Male	187 (45.1)
	Female	228 (54.9)

본 조사에 앞서 2016년 7월 28일 서울시 M대학교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문항의 이해 정도와 답변의 원활함을 확인한 후 본 조사에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6년 8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하였다. 질문지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 후 배부 및 회수되었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전체 질문지에 응답한 시간은 대략 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

2.2. 연구도구

2.2.1. 내현적 자기에 척도

본 연구에서는 Akhtar와 Thomson (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토대로 Gang과 Chung (2002)이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내현적 자기에 척도 (covert narcissism scale; CN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착취/자기중심성’, ‘목표불안정’,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 등 5개 하위 영역의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3이었으며, 각 하위 영역별 신뢰도는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80, 착취/자기중심성 .81, 목표불안정 .90, 과민/취약성 .83, 소심/자신감 부족 .78로 나타났다.

2.2.2. 평가염려 완벽주의 척도

본 연구에서는 Blankstein과 Dunkley (2002)가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 (1990),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MPS (1991), almost perfectionism scale-revised: APS-R (1996) 이 3개의 척도 중 평가염려 완벽주의에 해당하는 하위 요인들을 선별하여 구성된 척도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불일치’ 등 4개 하위 영역의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평가염려 완벽주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2였으며, 각 하위 영역별 신뢰도는 실수에 대한 염려 .92, 수행에 대한 의심 .76,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78, 불일치 .91로 나타났다.

2.2.3. SNS 중독경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Jung과 Kim (2014)이 개발한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몰입 및 내성’, ‘부정정서의 회피’,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 등 4개 하위 영역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4였으며, 각 하위 영역별 신뢰도는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87, 몰입 및 내성 .82, 부정정서의 회피 .82,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 .83으로 나타났다.

2.3. 자료 분석

최종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에와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 보기 위해 단계적 (stepwise)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검증에 대해 단순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에와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에와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에서 SNS 중독경향성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SNS 중독경향성의 하위 요인들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여자가 남자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 및 SNS 중독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Baek과 Cho, 2016; Lee와 Cho, 2012; Park과 Park, 2017), 본 연구에서는 일부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SNS 중독경향성의 성차를 고려하여 그에 대한 재확인 절차를 시행하였다.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SNS 중독경향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라 SNS 중독경향성 ($t = 2.60, p < .05$)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에 성별 (여=0)을 가변수 (dummy variables) 처리하여 투입하였다. Durbin-Watson 검정 결과, D-W 계수는 1.72-1.98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항 간의 상관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공차한계 (tolerance)는 .61-.95로 .1이상이며, 분산팽창계수 (VIF)는 1.30-1.91로 10이하이므로 각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SNS 중독경향성의 각 하위 요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를 설명하는 변인은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 요인인 착취/자기중심성 ($\beta = .29, p < .001$), 과민/취약성 ($\beta = .17, p < .01$), 성별 ($\beta = -.11, p < .05$),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하위 요인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beta = .11, p <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에 대해 착취/자기중심성은 전체 변량의 17%를 설명하였으며 ($F = 81.72, p < .001$), 과민/취약성은 이에 4%의 설명력을 추가하였고 ($F = 54.10, p < .001$), 성별은 다시 1%의 설명력을 추가하였다 ($F = 38.25, p < .001$). 마지막으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또 다시 1%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총 23%였다 ($F = 30.33, p < .001$).

몰입 및 내성을 설명하는 변인은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 요인인 과민/취약성 ($\beta = .14, p < .05$), 착취/자기중심성 ($\beta = .22, p < .001$),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하위 요인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beta = .18, p < .01$), 성별 ($\beta = -.13, p < .01$)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몰입 및 내성에 대해 과민/취약성은 전체 변량의 12%를 설명하였으며 ($F = 58.06, p < .001$), 착취/자기중심성은 이에 4%의 설명력을 추가하였고 ($F = 38.51, p < .001$),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다시 2%의 설명력을 추가하였다 ($F = 30.19, p < .001$). 마지막으로, 성별은 또 다시 2%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몰입 및 내성에 대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총 20%였다 ($F = 25.19, p < .001$).

부정정서의 회피를 설명하는 변인은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 요인인 착취/자기중심성 ($\beta = .29, p < .001$), 과민/취약성 ($\beta = .18, p < .01$), 성별 ($\beta = -.12, p < .01$),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하위 요인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beta = .12, p <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정정서의 회피에 대해 착취/자기중심성은 전체 변량의 18%를 설명하였으며 ($F = 88.01, p < .001$), 과민/취약성은 이에 4%의 설명력을 추가하였고 ($F = 42.36, p < .001$), 성별은 다시 2%의 설명력을 추가하였다 ($F = 42.44, p < .001$). 마지막으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또 다시 1%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부정정서의 회피에 대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총 25%였다 ($F = 33.69, p < .001$).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을 설명하는 변인은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 요인인 착취/자기중심성 ($\beta = .31, p < .001$),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하위 요인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beta = .15, p < .01$),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 요인인 과민/취약성 ($\beta = .11, p <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에 대해 착취/자기중심성은 전체 변량의 18%를 설명하였으며 ($F = 90.73, p < .001$),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이에 3%의 설명력을 추가하였고 ($F = 55.00, p < .001$), 과민/취약성은 다시 1%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에 대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총 22%였다 ($F = 38.27, p < .001$). 분석 결과는 Table 3.1에 제시되어 있다.

3.2.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검증은 위해 Baron과 Kenny (1986)의 절차에 따라 단순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둘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새로운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Durbin-Watson 검정 결과, D-W 계수는 1.74-2.08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항 간의 상관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공차한계는 .52-1로 .1이상이며, 분산팽창계수는 1-1.91로 10이하로 각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1 The relative influences of covert narcissism and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on SNS addiction tendency of undergraduate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β	R^2	ΔR^2	F
Control failure and disturbance of adaptive	1	Exploitation/self-centeredness	.22	.29***	.17		81.72***
	2	Hypersensitivity/vulnerability	.11	.17**	.21	.04	54.10***
	3	Gender	-.87	-.11*	.22	.01	38.25***
	4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07	.11*	.23	.01	30.33***
Absorption and tolerance	1	Hypersensitivity/vulnerability	.09	.14*	.12		58.06***
	2	Exploitation/self-centeredness	.16	.22***	.16	.04	38.51***
	3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10	.18**	.18	.02	30.19***
	4	Gender	-1.06	-.13**	.20	.02	25.19***
Avoidance of negative emotion	1	Exploitation/self-centeredness	.15	.29***	.18		88.01***
	2	Hypersensitivity/vulnerability	.08	.18**	.22	.04	42.36***
	3	Gender	-.67	-.12**	.24	.02	42.44***
	4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05	.12*	.25	.01	33.69***
Virtual life orientation and withdrawal	1	Exploitation/self-centeredness	.16	.31***	.18		90.73***
	2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06	.15**	.21	.03	55.00***
	3	Hypersensitivity/vulnerability	.05	.11*	.22	.01	38.27***

* $p < .05$, ** $p < .01$, *** $p < .001$

Dummy variables (gender) : female=0, male=1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내현적 자기애가 매개변인인 평가염려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 ($\beta = .69, p < .001$), 독립변인인 내현적 자기애가 종속변인인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 ($\beta = .41, p < .001$). 그러나 독립변인인 내현적 자기애가 종속변인인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에 미치는 영향력은 감소한 반면 ($\beta = .35, p < .001$), 매개변인인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종속변인인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beta = .09$). 이에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내현적 자기애와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몰입 및 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내현적 자기애가 매개변인인 평가염려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 ($\beta = .69, p < .001$), 독립변인인 내현적 자기애가 종속변인인 몰입 및 내성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 ($\beta = .36, p < .001$). 또한 매개변인인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종속변인인 몰입 및 내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동시에 ($\beta = .14, p < .05$), 독립변인인 내현적 자기애가 종속변인인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beta = .27, p < .001$). 이에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내현적 자기애와 몰입 및 내성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Sobel 검증 결과,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Z = 2.06, p < .001$).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정서의 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내현적 자기애가 매개변인인 평가염려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 ($\beta = .69, p < .001$), 독립변인인 내현적 자기애가 종속변인인 부정정서의 회피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 ($\beta = .41, p < .001$). 그러나 독립변인인 내현적 자기애가 종속변인인 부정정서의 회피에 미치는 영향력은 감소한 반면 ($\beta = .33, p < .001$), 매개변인인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종속변인인 부정정서의 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beta = .12$). 이에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정서의 회피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내현적 자기애가 매개변인인 평가염려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 ($\beta = .69, p < .001$), 독립변인인 내현적 자기애가 종속변인인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 ($\beta = .37, p < .001$). 또한 매개변인인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종속변인인 가상세계 지향성 및 금단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동시에 ($\beta = .14, p < .05$), 독립변인인 내현적 자기애가 종속변인인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beta = .27, p < .001$). 이에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Sobel 검증 결과,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Z = 7.29, p < .001$). 분석 결과는 Table 3.2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3.2 The mediating effect of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in the influence of covert narcissism on SNS addiction tendency of undergraduates

	Step	Variable	β	R^2	F
Control failure and disturbance of adaptive	1.Independent	Covert narcissism	.69***	.48	187.24***
	→mediating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2.Independent	Covert narcissism	.41***	.18	45.70***
	→dependent	→control failure and disturbance of adaptive			
	3.Independent	Covert narcissism	.35***	.19	31.32***
	→dependent	→control failure and disturbance of adaptive			
Absorption and tolerance	1.Independent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69***	.48	187.24***
	→mediating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2.Independent	Covert narcissism	.36***	.14	36.20***
	→dependent	→absorption and tolerance			
	3.Independent	Covert narcissism	.27***	.16	25.89***
	→dependent	→absorption and tolerance			
Avoidance of negative emotion	1.Independent	Covert narcissism	.69***	.48	187.24***
	→mediating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2.Independent	Covert narcissism	.41***	.19	46.68***
	→dependent	→avoidance of negative emotion			
	3.Independent	Covert narcissism	.33***	.19	32.62***
	→dependent	→avoidance of negative emotion			
Virtual life orientation and withdrawal	1.Independent	Covert narcissism	.69***	.48	187.24***
	→mediating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2.Independent	Covert narcissism	.37***	.14	32.71***
	→dependent	→virtual life orientation and withdrawal			
	3.Independent	Covert narcissism	.27***	.15	23.54***
	→dependent	→virtual life orientation and withdrawal			
	Mediating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14*		
	→dependent	→virtual life orientation and withdrawal			

* $p < .05$, ** $p < .01$, *** $p < .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평가염려 완벽주의 및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주요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 하위 요인들 중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부정정서의 회피,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 요인인 착취/자기중심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특성은 인터넷 중독과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

과 (Kuss와 Griffiths, 2011)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SNS는 사용자의 관심사에 따라 자기 주도적으로 글, 사진, 댓글 등을 구성, 게시할 수 있는 1인 미디어라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09), 내현적 자기애의 자기중심적 성향이 SNS의 사용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내현적 자기애의 착취/자기중심성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타인을 이용하며 타인에 대한 일방적인 통제를 시도하지만, 이는 결국 대인관계의 와해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자기중심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처 방안으로 SNS 상에서 통제성이 높은 가상 세계를 구성, 활성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스스로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한 방략으로 자존감에 위협이 될 만한 현실 상황을 회피하고 보상을 추구하기 위해 SNS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의 자기중심적 성향은 이상적 자기와 현실적 자기 간의 불일치로 초래되는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회피 전략으로 SNS 사용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경우 과도한 정서 억제 및 회피를 나타낸다는 선행연구 결과들 (Choi와 Chang, 2010; Kim과 Suh, 2015)에 의해 지지된다.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또 다른 가설은 최근 제기된 감각추구성향과의 연관성이다 (Wang 등, 2012). 내현적 자기애 중 대인 간의 공격·착취적 성향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감각 자극을 추구하는 경향과 상관이 있으며, 이는 매체의 과다 사용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SNS는 실시간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자료들이 업로드 되는 특징이 있어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경우 SNS 사용조절에 더 취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SNS 중독경향성의 하위 요인들 중 몰입 및 내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 요인인 과민/취약성으로 드러났다. 과민/취약성이 높은 경우, 타인의 부정적 평가 또는 피드백에 매우 민감하여 직접적인 대인 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안이 높다 (Gang과 Chung, 2002). 반면, SNS 상에서의 상호작용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선별, 제시할 수 있으며, 대상의 범주 또한 설정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안전한 환경으로 지각할 수 있다. 따라서 과민/취약성으로 야기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SNS 몰입은 일종의 회피 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회피 행동은 일시적인 불안 감소를 가져옴으로써 강화되거나 궁극적으로는 불안을 점차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SNS 사용시간의 점진적 증가 즉, SNS 몰입과 현실에서의 부적응 간의 악순환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셋째,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하위 요인들 중 유일하게 SNS 중독경향성을 설명하는 변인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의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스스로 자신에게 기준을 부여하는 자기부과적 완벽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 정서, 대인관계 문제 등 부적응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Han 등, 2014; Kim 등, 2012).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자신의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경우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할 것이라는 사고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될 만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들 (Oh 등, 2011; Park과 Yang, 2012)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즉, SNS 상의 상호작용에서는 자기 관련 정보를 타인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구성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경향성 중 몰입 및 내성과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내현적 자기애가 몰입 및 내성과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평가염려 완벽주의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가 타인의 평가에 대한 염려 및 타인의 기준을 충족하려는 완벽주의를 수반할 경우, SNS 중독경향성 중 특히 가상 세계의 몰입과 관련이 있음을 가리킨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경우 타인의 반응에 대한 민감성으로 인해 현실에서 나타내지 못했던 것을 가상 공간인 SNS 상에서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들 (Jeong과 Moon, 2015; Kim과 Suh, 2015)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반면 내현적 자기애가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와 부정정서의 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매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자신 혹은 타인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엄격한 자기 통제를 시도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Dunkley 등, 2000), SNS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일, 학업 등의 곤란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평가염려 완벽주의 성향은 SNS 사용을 단순히 부정적 정서의 회피 수단으로 삼기보다 SNS 상의 가상 세계에서의 보상을 추구할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의 경우 변인들 간의 양상이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달 단계별로 이를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SNS 중독경향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인터넷 중독과의 비교, 또는 SNS의 다양한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은 SNS 중독경향성 비임상집단으로 임상 기준을 충족하는 SNS 중독집단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새로운 탐색이 이루어졌으며,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SNS 중독경향성의 치료적 방안과 예방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내현적 자기애와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SNS 중독경향성의 치료와 예방에 개입한다면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Akhtar, S. and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American Psychiatric Pub.
- Andreassen, C. S., Pallesen, S. and Griffiths, M. D.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addictive use of social media, narcissism, and self-esteem: Findings from a large national survey. *Addictive Behaviors*, **64**, 287-293.
- Baek, S. S. and Cho, J. Y. (2016). The influence of SNS addiction tendency and mental health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 77-85.
- Baron, R. M. and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
- Blankstein, K. R. and Dunkley, D. M. (2002). Evaluative concerns, self-critical, and 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ategy. In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edited by Flett, G. L. and Hewitt, P. L.,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285-315.
- Choi, H. J. and Chang, M. S. (2010). MMPI-2 profile and characteristic of defense mechanisms with overt? Covert narcissistic tendency group.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 539-554.
- Dunkley, D. M., Blankstein, K. R., Halsall, J., Williams, M. and Winkworth, G. (2000). The relation between perfectionism and distress: Hassles, coping,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s mediators and modera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437-453.
- Gang, S. H. and Chung, N. W. (2002).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vert narcissism scal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4**, 969-990.
- Ha, T. H. (2016). The influences of self-efficacy and attachment on SNS addiction tendency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7**, 763-772.
- Han, J. S., Choi, S. W. and Kim, M. R. H.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prescribed and self-oriented perfectionism and social anxiety: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sciousness and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9**, 791-812.

- Hwang, H. E. and Kim, H. S. (2015). Influences of self-esteem, social anxiety and interpersonal relation orientation on the tendency of social network service addi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 233-253.
- Jeong, G. C. and Moon, J. H. (2015). Influence of covert narcissism on the SNS addiction proneness in university student : Mediating effect of anger express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 146-156.
- Karaïskos, D., Tzavellas, E., Balta, G. and Papparrigopoulos, T. (2010). Social network addiction: A new clinical disorder? *European Psychiatry*, **25**, 855-855.
- Kim, B. J., Lee, D. G. and Lee, H. K. (2012). Exploration of mediators between perfectionism (socially-prescribed and self-oriented) and depression: Social anxiety and ruminat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3**, 417-436.
- Kim, S. J. and Lee, Y. S.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ocial anxiety in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internalized sham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6**, 199-216.
- Kim, S. M. and Suh, K. H. (2015). Relationships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NS addiction proneness :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xperiential avoidanc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 587-603.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2015). *Diffusion of smartphone and the changes in characteristics of media use*,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Seoul.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2016). *SNS (Social Network Service) usage trend and usage behavior analysis*,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Seoul.
-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09). *Survey on the internet user's SNS usage*,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Seoul.
-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5). *Survey on the internet usage*,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Seoul.
- Krizan, Z. and Johar, O. (2015). Narcissistic rage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8**, 784-801.
- Kuss, D. J. and Griffiths, M. D. (2011).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addiction: A review of the psychological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8**, 3528-3552.
- Lee, H. B., Kim, D. W., Choi, J. Y. and Shin, M. H. (2014). A study on teenagers' SNS use features and addiction : Focus on middle school student of Gyeonggi-do & Gangwon-do. *GRI REVIEW*, **16**, 365-391.
- Lee, I. S. and Cho, J. Y. (2012). Factors influencing SNS addiction tendency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 2623-2633.
- Lee, Y. E., Park, H. J. and Heo, C. G. (2016). The mediating roles of interpersonal problems between narcissism and SNS addiction tendency.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30**, 63-80.
- Oh, J. E., Lim, S. M. and Choo, S. Y.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self-handicapping: The mediating effect of achievement goal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3**, 135-155.
- Park, B. R. and Yang, N. M.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performance-avoidanc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self-handicapping strategy.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1**, 541-561.
- Park, J. H. and Park, J. H. (2017). The relationships amo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xiety, college adjustment, self-control, and smartphone addi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8**, 185-194.
- Park, S. H. (2015).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SNS addiction proneness: The mediating effect of dissatisfaction of relatedness needs*, Master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 Park, Y. J. and Chung, N. W. (2013). The effects of covert narcissism on social interaction anxiety: The mediating effects of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4**, 55-74.
- Santanello, A. W. and Gardner, F. L. (2007). The role of experiential avoid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worr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1**, 319-332.
- Seo, W. J., Kim, M. R. H., Kim, J. H., Chad, E. and Jo, I. S. (2015).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social media addiction.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 497-512.
- Sherry, S. B., Stoeber, J. and Ramasubbu, C. (2016). Perfectionism explains variance in self-defeating

- behaviors beyond self-criticism: Evidence from a cross-national samp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5**, 196-199.
- Smith, M. M., Sherry, S. B., Chen, S., Saklofske, D. H., Flett, G. L. and Hewitt, P. L. (2016). Perfectionism and narcissism: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64**, 90-101.
- Suh, K. H. and Cho, S. H. (2013). An exploratory study on factors related with SNS addiction proneness: Focus on covert narcissism,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and sense of alienation.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8**, 239-250.
- Wang, J. L., Jackson, L. A., Zhang, D. J. and Su, Z. Q. (2012). The relationships among the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self-esteem, narcissism, and sensation-seeking to chinese university students' uses of social networking sites (SNS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8**, 2313-2319.

An effect of covert narcissism on SNS addiction tendency in university students - Focusing on a mediating effect of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

Euncho Yoon¹ · Jung Min Kim² · Areum Han³

¹²³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Myongji University

Received 21 March 2017, revised 9 May 2017, accepted 16 May 2017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lative influences of covert narcissism and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on SNS addiction tendency, and the mediating effect of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in the influence of covert narcissism on SNS addiction tendency of undergraduat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First, control failure and disturbance of adaptive, avoidance of negative emotion, and virtual life orientation and withdrawal were best accounted for by exploitation/self-centeredness. On the other hand, absorption and tolerance was best accounted for by hypersensitivity/vulnerability in undergraduates. Also, SNS addiction tendency was accounted for by only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of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Second,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absorption and tolerance and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virtual life orientation and withdrawal, while it didn't mediate the relations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control failure and disturbance of adaptive and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avoidance of negative emotion.

Keywords: Covert narcissism,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SNS addiction tendency, undergraduates.

[†] This paper is based on part of Euncho Yoon's Master thesis..

¹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Statistic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41566, Korea.

²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tatistic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41566, Korea.

³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tatistic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41566, Korea. E-mail: kim.1252@knu.ac.kr